

임실 기업 두 곳, 성장 발판 확보 남원시, 재정집행 '전국 5위'

친한F&B·임실생약 영농조합법인, 전북자치도 선도·돈움기업 각각 지정

임실군을 대표하는 식육가공업체와 건강보조식품 회사가 성장이 기대되는 유망한 기업으로 각각 선정됐다. 군은 임실군 식육가공 대표 기업인 (주)친한F&B(대표 정승관)가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정하는 최고등급인 '선도기업'으로, 30년 전통의 건강보조식품 회사인 임실생약 영농조합법인(대표 심재석)은 '돈움기업'으로 각각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은 기술개발(R&D)과 공정개선, 마케팅 등의 분야에서 각각 5년과 3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임실군 식육가공 대표 기업인 (주)친한F&B가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정하는 최고등급인 '선도기업'으로, 30년 전통의 건강보조식품 회사인 임실생약 영농조합법인은 '돈움기업'으로 각각 지정됐다. (위 친한F&B 전경과 공장 내부, 아래 임실생약 전경과 공장 내부)

전북특별자치도는 최근 (재)전북테크노파크와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진흥진흥원, (사)캠텍종합기술원과 함께 최근 2024년 성장사다리 신규기업 지정 및 최고경영자 혁신포럼'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전북자치도 주관 돈움·도약·선도기업 53개사와 중기부 주관 글로벌 강소기업 4개사를 포함하는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성장사다리 신규지정 기업 57개사가 지정서를 수여한 가운데 임실에서는 이들 두 기업이 포함됐다.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체계'는 기업규모와 성장단계에 기초한 지역과 중앙정부 기업육성사업의 연계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에 돈움기업, 도약기업, 선도기업, 스타기업, 글로벌 강소기업의 5단계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는 육성프로그램이다. 최고등급인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주)친한F&B는 지난 2018년부터 임실에서 식육가공업체로 첫발을 내디딘 후 임

실군을 대표하는 식육가공업체로 급성장하고 있다. 이 회사가 선정된 선도기업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속성장 가능성과 지역 파급효과가 높은 중소·중견기업을 발굴·육성하는 성장사다리 육성 프로그램을 중 3단계에 해당한다. 친한F&B는 지난 2019년 IFBA 독일 식육 올림픽에서 아시아 최다 메달을 획득하고 현재 임실치즈를 이용한 식육가공 제품들을 지속 출시, 임실군의 대표 브랜드인 치즈를 대내외에 알리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는 지역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돈움기업으로 선정된 임실생약 영농조합법인인 지난 1992년부터 약용작물을 연구·재배·가공해 건강보조식품을 제조하는 30년 전통의 유망한

건강보조식품 회사로 각광받고 있다. 돈움기업은 기술 혁신성을 바탕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하는 성장사다리 육성 프로그램을 중 1단계에 해당한다. 이들 기업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제조공정 개선 및 마케팅 분야에서 지원을 받아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심민 군수는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사업에 참여하는 관내 기업들이 지역을 대표하는 유망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관내 기업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치즈 등 특산품을 활용한 제품을 다양하게 개발, 판매함으로써 전국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실=진총영 기자

순창군, 도시가스 설치 지원으로 에너지 복지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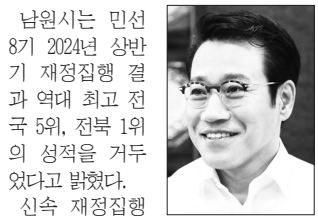
순창읍 남산마을·신기마을 설치비 지원사업 추진

순창군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설치비 지원사업'을 통해 농촌 지역의 에너지 복지 향상에 나섰다. 이번 사업을 통해 그동안 도시가스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순창읍 남산마을과 신기마을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할 전망이다. 총사업비 10억8,500만원이 투입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3.3km에 달하는 도시가스 공급관로를 설치하고, 각 가정으로 연결되는 인입배관 매설비용을 지원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지원사업은 공급관로 설치비용의 경우 도비 30%, 군비 70%로 대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며, 여기에 도시가스 회사도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며 사업에 참여한다. 인입배관의 경우, 군에서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고 나머지는 주민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와 관련 군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5월 도시가스공급업체인 전북도시가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지난 1일 신기마을에서 주민 25명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순창군과 전북도시가스가 공동 개최한 이번 설명회에서는 도시가스사업 개요, 사업추진 경과 및 정책, 도시가스

공급현황, 도시가스의 장·단점, 공급배관 설치계획, 도시가스 신청 절차, 주민 부담 비용 등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순창읍 남산마을 65가구와 신기마을 55가구, 총 120가구가 도시가스의 혜택을 누리게 되며 이는 단순히 난방비 절감을 넘어, 주거 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영일 군수는 "이번 사업은 단순한 에너지 인프라 확충을 넘어 농촌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상반기 결과 역대 최고 '전북 1위' 성적 거둬



최경식 남원시장

남원시는 민선 8기 2024년 상반기 재정집행 결과 역대 최고 전국 5위, 전북 1위의 성적을 거두었다고 밝혔다. 신속 재정집행은 행안부에서 지역경제를 살리고 연말 예산집행 집중 방지를 위해 재정운용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매년 실시하는 평가로, 1분기 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5천만원 확보하였고, 상반기 총 결과도 8월중 배부될 예정이다. 남원시는 올해 재정지급도 최하위로, 정부의 세수 감소에 따라 교부세가 전년보다 1,000억원 이상 대폭 감액되어 더욱 열악한 상황이다. 이번 성과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를 살리고 경기 부양을 할 수 있게 상반기 신속 집행에 총력을 다한 결과로, 남원시는 신속집행 추진단을 구성해 작년도 이월 사업을 집중 점검해 부진사유를 적극 해소하는 등 체계적으로 집행관리 하고, 집

행 가능사업은 적재적소 속도감 있는 재정투입으로 지역경제 활력 및 민생 안정에 뒷받침할 수 있었다. 주요 집행을 살펴보면 전북대 남원 글로벌캠퍼스 설립으로 교육 거점도시 기틀 마련하고자 서남대 부지매입 202억원, 역사문화 생태지연 연계 체류형 문화 관광산업 거점 도약하고자 민간공원 조성사업 98억원을 집행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76억원,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47억원, 마을단위 LPG 시설개선사업 42억원,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39억원, 농작물재해보험 32억원 등을 집행했다. 또한 촘촘한 출산과 보육, 교육과 복지시스템 구축하여 정주환경 개선하고자 복합형 공공도서관 46억원, 육아종합지원센터 16억원, 소프트 미래체육사업 15억원 등을 집행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번 성과는 모든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한 결과며, 하반기에도 전략적 예산집행 관리를 통해 이월 및 불용예산을 최소화하고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극대화해서 민생경제 안정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상반기 지방세 징수 실적 '최우수'

임실군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한 2024년 상반기 지방세 징수 실적 평가에서 최우수에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더불어 군은 지방세 징수 실적 우수기관 시상금으로 인센티브 1,100만원을 확보했다. 군은 평가 기간 재원확보와 재정건전성을 높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자체 징수계획을 수립해 군·읍·면 합동으로 체납지방세 일제정리기

간을 운영하여 체납 지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체납자 재산 400여 건 압류 및 체납 차량 영치 20대, 체납자 재산 공매처분,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 등을 통해 지방세 이월 체납액 2억5천만원을 징수했다. 또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추진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징수 활동을 전개했다. /임실=진총영 기자

남원시, 민원 구비서류 전산 확인 서비스 운영

남원시에서는 시민들이 민원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이라는 전산망으로 담당자가 서류를 직접 확인하여 처리해 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남원시 민원과는 민원인이 여러 관공서를 돌아다니며 구비서류를 챙겨야 했던 불편함을 없애고 신속히 처리해 주는 사무를 매년 신규 발굴하여 민원 서비스 향상에 앞장서고 있으며, 현재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화재피해 주민 지원 △노인 무료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등 사

업 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다. 또한 남원 승화원에서 봉안 안치 및 화장장 이용시 필요한 서류를 이용객이 제출하지 않아도 현장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 관공서가 문을 닫는 주말 및 공휴일에도 이용객의 불편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시 민원과정은 "앞으로도 신규 이용 사무를 지속 발굴,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원 서비스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 통

남원시 도통동 주거환경 개선 나서

남원시 도통동행복복지센터(동장 소선자)는 1일 1기구 소통행정으로 방문한 한 어르신 주택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내 재능기부와 협력해 주거환경을 개선했다. 이 어르신의 주택은 지붕과 연결된 마당이 가림막으로 인해 비가 올 때 물이 마르지 않고 곰팡이가 번식하는 어두운 환경이 문제로, 동은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재능기부자 연계해 마당 가림막을 투명하게 일부 교체해 햇빛이 좋아지도록 하면서 어두운 환경에서 벗어나게 했다. 한편 소선자 도통동장은 "재능기부를 해 주신 분께 감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창출 효과 특목

순창군이 가사·양육 등으로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여성들의 근로활동 촉진을 위해 '경력단절여성 시간제 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일자리 창출 효과를 특목히 보고 있다. 이 사업은 미취업 중인 관내 여성을 시간제로 고용한 경우 기업에 해당 근로자의 인건비를 50% 지원해 참여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어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군은 더 많은 기업과 여성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반기부터 지원대상 제외기준을 완화해 참여기업과 근로자를 모집 중이며, 최대 30명의 참여 근로자까지 연중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지원대상 기업은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순창군 소재 기업으로 미취업 중인 18세 이상 69세 이하인 관내 여성을 근로계약서상 1주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신규 채용한 기업이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군청 주민복지과 방문 또는 이메일(gtjts5517@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별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